

웅진케미칼, 영업이익 90% 급증

3/4분기 매출은 7% 증가 2214억원 ... 섬유·필터 판매 호조 영향

웅진케미칼(대표 박광업)은 3/4분기 영업이익 90% 이상 급증했다.

웅진케미칼은 2010년 3/4분기에 매출 2214억원, 영업이익 15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월21일 발표했다.

전년동기대비 매출은 6.9%, 영업이익은 90.7% 증가했으며, 순이익은 208억원으로 297.3% 늘어났다.

3/4분기 순이익은 삼성그룹의 제일합섬에서 새한으로 회사명을 변경한 1997년 이후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/4분기에 비해 매출은 2.6%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.7%, 265% 늘어났다.

웅진케미칼 관계자는 “섬유부문이 3/4분기 성수기를 맞아 매출이 늘었고 해외시장이 커지는 필터 판매실적도 좋았다”며 “4/4분기에는 기능성 친환경섬유 판매를 늘리고 필터 및 광학소재의 해외 판매에 집중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0/21>